

“교과서엔 없는 ‘일본 동포들의 삶’ 배웠죠

이혼 드라마야 현실이야

애플TV 시리즈 ‘파친코’ 운영정

해방 전 일본 이주 한국인 가족 연대기 1980년대 주인공 ‘선자’ 노년시절 연기 “재일교포에게 이야기 듣고 많은 눈물 일본어 몰라서 대사 외우느라 고생”

“자이니치(在日·일본에서 재일 한국인을 부르는 표현)의 삶에 관해서 물어봤죠.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감사하면서도 그들의 삶을 우리가 너무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배우 운영정)



운영정



파친코

주인공 ‘선자’의 노년 시절을 연기한 운영정은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것 이외의 것들을 배웠다”고 작품에 출연한 소감을 털어놓았다.

2022년 공개된 시즌1은 호평받으며 제28회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 최우수외국어시리즈상, 제32회 고섬 어워즈 최우수장편시리즈상 등을 거머쥐었다.

움을 토로하며 “시즌3에도 일본어 대사가 많으면 나는 안 하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손자 솔로몬 역할의 진하는 일본어를 못하는데도 일본어 대사를 다 해냈다”며 “그 래선지 나한테도 시즌2에서 일본어 대사를 많이 됐다”고 설명했다.

BTS 지민 ‘후’ 식지않는 글로벌 인기

솔로 2집 발매 한달... 英 싱글 5주 연속 차트인·스포티파이 2위 등

그들 방탄소년단(BTS) 지민(지민)의 솔로 2집 타이틀곡 ‘후(Who)’가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5주 연속 이름을 올렸다.

‘후’는 이 밖에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 ‘싱글 다운로드’ 3위, ‘싱글 세일즈’ 4위를 각각 차지했다.



SBS ‘굿파트너’ 현직 이혼 전문 변호사 극본 실전 경험 쓴 이야기 인기... 시청률 고공행진



이혼, 불륜, 그리고 법정 싸움. 슬픈 드라마에서 다뤄온 익숙한 소재인데, 현실성을 더하니 색다른 흥행작이 탄생했다. SBS 드라마 ‘굿파트너 <사진>’ 얘기다.

신입 변호사 한유리(남지현 분)는 “돈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는 선택”을 할 수는 없다고 필멸 뒤편을 다그치지만, 차은경(장나라)은 고민하는 의뢰인에게 오히려 그것이 아이를 위한 선택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